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및 음악교육 실태조사*

이 혜 수** · 현 경 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과 새터민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의 음악교육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교육에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외형체제 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판형을 가지며 삽화나 사진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종이 재질, 잉크 상태 등은 질이 낮고 불량하였다. 둘째, 내용체제 면에서는 가창영역과 시창영역의 비중이 높고 가사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조국찬양, 충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그 외 기악영역, 이론영역 등은 내용이 적어 실질적으로 학습되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셋째, 인터뷰결과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남한과 비슷하게 구성 되어있지만 시설낙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실 내 악기보급이 부족하고, 음향시스템이 구비되지 않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음악은 주체 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북한의 음악교육, 교육목표, 교육과정, 새터민 음악교육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교육목표
2. 북한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IV. 연구 결과

1. 교과서 분석
2. 인터뷰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논문임.

** 제 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후 지금까지 미·소 군정, 남·북한 단독정부수립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의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단절된 채 살아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이고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양분되어왔다. 남한과 북한은 떨어져서 서로 다른 문화·전통·가치관을 발전시키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통일을 대비하여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음악교육은 동질성 회복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악은 인간에게 미적 경험과 즐거움뿐 아니라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에도 기여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전승하여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은 곧 음악교육의 본질이자 내용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한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배인교(2012), 박균열(2010), 정혜경(2009), 서현진(2005), 김현주(2004)는 북한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로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헌 등에 의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각적인 시각에서 남·북한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향후 통일교육에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각계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북한 자료센터의 개관으로 인해 북한자료를 구할 수는 있으나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로 남한에서 발행된 단행본, 논문, 간행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북한 음악교육의 범위는 학교음악교육만으로 제한

되었다.

셋째, 북한의 교육과정은 2012년 개편되었지만 아직 교육과정이 공개 되지 않아 개편 이전의 교육과정을 수록하였고 교과서도 북한자료 센터에 소장된 2002년 출판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넷째, 인터뷰를 실시한 새터민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명을 사용하였고 인터뷰 역시 소수인원만을 실시하였으므로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교육목표

북한은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시작점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제도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 1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쟁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자 혁명사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형이다. 북한 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 갖추어야 할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북한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현재 북한의 학제는 [그림 1]과 같이 소학년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된다.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8살인 반면 북한에서는 소학교(초등학교) 입학연령이 6살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북한의 초급, 고급 중학교(중고등학교) 연령 시기는 11~17살인 반면 남한의 중·고등학교 시기는 14~19살로 나이연령이 다를 수 있다.

연령	2012 년 개편 이후 학제			단계
22~26	박사원 연구원 (2~3년)			고등교육
16~22	대학(4~6년)	단과대학(3~4년)	고등전문학교 (2~3년)	
10~16	의무 교육	중학교(6년)		중등교육
6~10		소학교(4년)		초등교육
4~6		유치원(2년)	높은반(1년) 낮은반(1년)	학교전 교육
-4	탁아소			

【그림 1】 북한의 2012년 개편 이후 학제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본래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이 없었으나 2001년도 처음으로 지역별 시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었다.

<표 4>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	2	3	4	5	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 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	2	3	4	5	6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김부자에 관한 충성심 배양이다.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교과목을 배운다. 경제난 이후에는 자본주의 유입에 대한 경계로 반미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고 외래문화 침투를 배격하는 교육강조, 군입대 장려가 교육을 통해 수단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외국어와 과학기술교육이 장려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북한의 교과서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 자료센터에서 구한 2002년에 출판된 교육도서출판사의 교과서 5권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2012년 개편된 북한의 교육과정에는 중학교가 6년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의 교과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북한자료센터에 있는 2002년 교과서를 사용하였기에 총 교과서는 5권이다. 교과서 분석은 외형체제와 내용체제로 나누었다. 외형체제는 판형과 지질, 활자, 삽화, 쪽수, 표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내용체제는 북한 교과서에 나타나는 활동영역인 가창, 시창, 감상, 기악, 기악과 노래, 음악이론, 창작 7개 영역 분석, 그 외 가사와 곡의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북한음악교과서 분석 대상

학년	교과서집필	출판사	출판년도
1	김미빈, 김승길, 조태봉, 송광철	교육도서출판사	2002
2	조태봉, 송광철, 김영심, 김미빈	"	"
3	송광철, 김미빈, 김군일, 조태봉	"	"
4	김종균, 배명진, 박동식, 정인갑	"	"
5	박동식, 김종호, 김종균, 정인갑	"	"

문헌연구와 교과서분석을 통해 북한의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으로 실태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터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나현희(2010), 정혜경(200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터뷰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교육환경, 내용, 평가, 활동, 기타생활 등 세밀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하였으며 한명의 새터민에게 실험실시를 하였다<표 2>.

<표 2> 인터뷰 기준표

구분	인터뷰 세부문항
기초사항	나이, 출생지, 정착기간, 음악교육유무
학교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규모, 정원, 시스템, 교복착용, 포상제도 등
교육환경 및 시설	음악실, 악기, 음향시스템
음악 교사	교사의 전공, 교권, 학생들 분위기
수업교재 및 내용	교과서, 수업내용, 활동
평가	숙제, 평가
정규수업 외 음악활동	발표회, 소조활동, 과외활동
진로	대학, 취업
그 외 학교생활	외국어, 평양과 지방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인터뷰는 세 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연구대상과 그들의 기초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표 3>.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자가 대출받은 북한 음악교과서를 보여주어 당시 상황을 최대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A씨는 2015년 9월 2일에 만나 약 2시간가량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B씨는 9월 19일에 만나 대략 1시간 30분가량 이루어졌다. C씨는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워

전화상으로 10월 12일에 1시간여정도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을 통해 차후 분석하였다.

<표 3> 인터뷰 연구대상

대상	성별	나이	남한 정착기간	북한에서 음악교육 받아본 유무	남한에서 음악교육 받아본 유무	출신
A씨	여	20대	4년	유(고등학교졸업)	유(개인레슨)	함경북도
B씨	여	20대	6년	유(예술중학교졸업)	유(예고, 예대)	양강도
C씨	여	20대	5년	유(고등학교졸업)	무	함경남도

IV. 연구 결과

1. 교과서 분석

1) 외형체제분석

북한의 음악교과서 5권 모두 동일한 판형으로 활자는 신명조체로 구성되어있다. 삽화와 사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겉표지만 컬러로 제작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수단이 되는 교육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 국가 내 출판사는 교육도서출판사 한 곳뿐이다.

<표 5> 외형체제 분석결과

분석기준	분석결과
판형	180mm×250mm 동일
활자	활체 : 신명조체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은 큰 활자로 굵게 표시
삽화와 사진	겉표지를 제외한 교과서 내 악기그림 수록 그 외 이해를 돕는 사진이나 삽화는 찾아볼 수 없다.
쪽수	1학년(48쪽), 2학년(53쪽), 3학년(52쪽), 4학년(48쪽) 5학년(48쪽)
표지	각 학년에 배우게 될 악기연주모습이 컬러로 제시
출판사	교육도서 출판사

2) 내용체제분석

① 단원구성

북한 교과서의 단원구성은 단원명에서 활동영역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있으며 특징으로는 시창 영역이 매 학년에 편성되어 계열성과 계속성의 특징을 보인다. 1학년의 단원구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단원구성

과	단원명
1	김일성 장군의 노래
2	《도》 대조시창(1,2)
3	김정일 장군의 노래
4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 기호
5	녀성중창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감상
6	《도》 대조시창 (3,4)
7	소년애국가
8	《도》 대조시창(5,6)
9	가야금
10	《도》 대조시창(7,8)
11	대동강
12	가야금독주 《초소의 봄》 감상
13	《도》 대조시창(9,10)
14	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
15	《도》 대조시창(11,12)
16	나의 조국 어머니 품아
17	《도》 대조시창(13,14)
18	목관3중주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감상
19	《도》 대조시창(15,16)
20	김정일 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어요
보충 교재	자장가
	하늘높이 날리는 로동당기발
	언제나 함께 계셔요
	장신의 피콜레
	그 말씀 안고자랴요

② 영역별 분석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가창, 시창, 감상, 기악, 기악과 노래, 음악이론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7> 에서 나타난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창영역이(39%) 가장 높고 가창영역(22%), 감상영역(19%), 기악영역(5%), 음악이론영역(10%), 기악과 노래(5%)로 구성되어 가창곡과 시창곡이 전체의 61%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 가창을 위한 시창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7> 전체 악곡의 영역별 비중

영역 학년	가창	시창	감상	기악	음악이론	기악과 노래	계(%)
1	5(25)	8(40)	3(15)	1(5)	2(10)	1(5)	20(100)
2	5(25)	8(40)	3(15)	1(5)	2(10)	1(5)	20(100)
3	4(21)	7(37)	4(21)	1(5)	2(11)	1(5)	19(100)
4	4(21)	7(37)	4(21)	1(5)	2(11)	1(5)	19(100)
5	3(17)	7(39)	4(22)	1(6)	2(11)	1(6)	18(100)
계	21(22)	37(39)	18(19)	5(5)	10(10)	5(5)	96(100)

③ 가창영역

가창은 언어의 매개가 되므로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은 부르기 쉽고 선율의 반복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북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곡의 형식은 송가⁴⁾, 혁명가요⁵⁾,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해설가요⁶⁾, 민요 등으로 나뉜다. 형식에 따른 가창영역 분류는 다음 <표 8> 와 같이 김부자 찬양에 관한 노래인 송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과서의 제1과는 항상 송가로 시작된다.

<표 8>가창영역 분류 수록 횟수

형식	수록횟수
송가	10
혁명가요	3

- 4) 김부자의 혁명업적, 위대성,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
- 5)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작된 노래.
- 6) 당을 찬양하거나 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을 가진 노래.

형식	수록횟수
행진가요	2
서정가요	2
당정책가요	3
민요	1

④ 시창영역

전체영역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가창을 위한 시창교육이 중요하게 교육되어 지고 시창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답식을 활용한 방법. 둘째, 장단을 이용한 시창방법으로 남한에서는 국악곡은 국악기로 반주하고 서양곡은 서양악기로 반주하며 표기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들을 배합하여 제시된다. 셋째, 화음체득을 위한 시창방법으로 단선을 뿐 아니라 2성부의 화음도 제시되어있다.

⑤ 감상영역

감상영역은 연주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성악곡에 나오는 가사는 대부분 김부자 찬양, 조국찬양에 관한 내용이고 기악곡이더라도 곡에 대한 설명, 작곡가의 의도를 설명해놓았으며 2곡을 제외한 곡들은 모두 이념적인 성격을 띄는 곡들이다.

<표 9> 연주형태에 따른 감상영역 분류

구분	연주형태	수록 횟수
가창	중창	1
	합창	3
기악	독주	4
	중주	3
	관현악	1
	협주곡	1
	경음악	2
	관현악과 합창	1
	독병창	1
가창&기악		

⑥ 기악영역

기악곡은 한 학년에 한 단위씩 소개되고 있으며 기초연습곡, 기악연습곡이 1곡씩 짧게 제시되어있다. 기악영역의 비율이 적은만큼 기악양상블의 연주경험이나 다양한 음색경험이 불가능하다.

<표 10> 학년별 기악영역

학년	차레	제목	악기편성 및 빠르기	비고
1	제9과	가야금	가야금 연주자세, 구조와 조류, 연주법	우특에 대한설명
2	제15과	손퐁금	손퐁금 형태, 연주자세 연주법	연습곡
3	제9과	단소	단소 생김새 손가락번호, 연주법	박연에 대해 설명
4	제13과	기타	기타 구조 명칭, 연주자세	<당중앙의 불빛> <어데까지왔니>
5	제16과	소해금	소해금 구조와 조류, 연주자세, 활쓰기 및 손가락질기	<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⑦ 기악과 노래 영역

한 학년에 한 단원씩 제시되어있고 가창과 악기를 같이 연주하도록 구성되어있지만 악기편성은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손퐁금, 장고, 기타 7가지로만 편성되어 있다. 노래내용은 김부자 찬양, 조국 찬양에 관한 내용 외 에 <명승가>란 풍경에 관한 노래도 수록되어있다.

<표 11> 학년별 기악과 노래 영역

학년	차레	제목	악기편성	박자	조성	내용
1	제11과	대동강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4/4	C	조국찬양
2	제12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반일전가>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6/8	C	일제타도
3	제5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꽃피는 처녀>	노래, 손퐁금, 소고, 대고, 풍금	9/8	G	꽃 피는 처녀에 관한 얘기
4	제5과	명승가	노래, 단소, 장고, 풍금,	3/4	F	풍경
5	제10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노래, 손퐁금, 기타, 소고, 대고, 풍금	4/4	D	김정일 찬양

⑧ 음악이론 영역

음악이론 영역은 각 학년마다 2단원씩 나오며 기초음악이론에 관해 상세히 설

명되어있다. 그러나 이론에 대한 설명뿐 그에 따른 학습활동영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학습되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12> 학년별 음악이론 영역

학년	차 례	제 목	내 용
1	제4과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기호	온음, 반음관계, 오선보설명
	제14과	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	음표, 쉼표, 박자, 리듬 설명
2	제3과	음정	음정, 전위
	제10과	화음	3,7,9화음, 전위, 협화, 불협화음정
3	제2과	조식과 조성	조식, 조성
	제18과	우리나라 민요조식	음계, 속도기호, 변속기호
4	제9과	화음표기	주3화음, 부3화음, 주7화음 부7화음
	제18과	선율음에 화음맞추기	조식-조성, 반주리듬
5	제5과	선율, I 부분형식	선율, 악절 설명
	제9과	2. 부분형식	단순2부분형식, 반복하지않는 단순2부분형식, 복합2부분형식 설명

⑨ 창작영역

각 학년의 시창영역의 단원 안에 창작영역이 포함되어있다. 대부분 악보가 제시되어 지시된 사항에 맞게 학습되어지도록 제시된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리듬 창작, 선율, 동기, 가사, 전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법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3> 학년별 창작활동

학년	활 동
1	리듬만들기
2	선율만들기
3	동기에 의한 한 개 악단의 선율 창작
4	가사에 의한 선율 창작
5	선율의 전개

⑩ 가사, 곡 내용 분석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가창, 기악, 시창, 감상 영역에 나온 곡을 중심으로 가사와 곡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표 14>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가사 내용 분석

학년	백두산 3대장군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당·사회 주의찬양	충성심 적개심고취	통일	기타	합계
1	8(42)	2(11)	4(21)	-	5(26)	19(100)
2	8(38)	4(19)	2(10)	-	7(33)	21(100)
3	10(48)	2(10)	4(19)	-	5(24)	21(100)
4	5(24)	5(24)	7(33)	-	4(19)	21(100)
5	3(15)	4(20)	5(25)	3(15)	5(25)	20(100)
합계	34(33)	17(17)	22(22)	3(3)	26(25)	102(100)

교과서에 수록된 곡 자체보다는 가사에 치중하고 이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교화의 기능을 가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인터뷰 결과

무상 의무교육제도는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낙후, 수업 질 저하 등과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의 규모나 시스템은 남한과 비슷하게 구성되어있으나 반의 수가 2~3학급으로 적은편이다. 공통점으로는 포상제도, 학급 임원, 교복착용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담임이 매 학년 마다 바뀌는 남한과 달리 입학학을 하면 졸업 때까지 한명의 담임이 전담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이며 남한과 비슷하게 주요과목에 비해 시간이 적은편이며 주로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에 관한 과목이 중요시된다.

A씨 : 제가 다닌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구성되어 보통 한반에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보통 한 학년에 2~3학급으로 있고... 반장, 부반장도 있었고...

A씨 : ...저희는 1학년 때 배정받은 선생님이 졸업 할 때까지 이어서 합니다. 총 6년간 한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C씨 : 일주일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3대 그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가장 많았어요.

음악실의 유무는 학교마다 다르며 음악 감상 등을 위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 구비되어있는 악기는 학교에 피아노 한 대정도이며 상태로 열악한 상황이다. 대신 아코디언의 보급화로 인해 아코디언은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되어 누구나 악기를 접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시설 면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다.

A씨 : 음악실은 따로 없고 교실에 음악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B씨 : 네 따로 있었어요. 전공실이요. 말하자면 여기 예술학교는 전공실이라고해서 그 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도 그게 있었어요. ...음악교실도 따로 있었어요.

C씨 : 발품금이 예전엔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품금 대신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학교도 있어요.... 아코디언하고 기타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코디언은 전기가 없어도 소리가 나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전문예술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원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전문가가 교원이 되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만 교사를 할 수 있기에 누구나가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북한에서 교권은 좋은 편이다. 처벌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엄격히 처벌을 행한다. 학생들의 분위기는 남한에 비해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농촌일을 하거나 장마당에 나가는 학생들도 많아 출석률이 떨어진다.

B씨 : 제가 성악전공해서 전공 선생님은 성악이고, 그냥 일반 음악선생님은 북한에서는 음악이론을 악전 이라고 하거든요 그 악전이란 시장 청음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는 아무래도 저희선생님은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석사과정을 했다거나,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고 일반학교는 사범대 졸업해야 되요.

C씨 : 그렇죠. 선생님 하려면 사범대나 교원대를 나와야 하고 사범대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고 교대는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많이 가요. 교대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수준이 있어요.

A씨 : 북한에서 교사 직업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초등학교 교사를 북한에서 하고 있는데 교사가 되려면 대학도 가야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어떤 학교 교사를 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또 반을 맡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A씨 : 남한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은 체벌이 허용되지 않고 핸드폰 찍어서 올리고 신고하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체벌도 있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항적이라기 보단 의무교육이라서 학생이 안오면 수업시간에 데리러 오라고 선생님이 시킵니다...

음악시간에 주로 가창과 시창활동을 많이 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적어진다.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에 관한 곡이다. 선생님을 따라 부르는 학습형태로 수업의 내용은 주로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내용이다. 기악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통해 배우게 된다.

A씨 : ...가창수업을 많이 합니다. 같이 악보 보면서 다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음악수업을 거의 안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음악을 더 많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발품급 하면서 책 펼쳐 놓고 악보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악기는 개인경험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조활동을 해서 많이 접해본 케이스 인 것 같아요.

C씨 : 노래죠. 노래위주고 시창을 많이 배웠죠. 청음? 하는 것 박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러 곡을 배우지 말입니다. ...악기는 중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배우진 않고... 저는 소조활동을 해서 아코디언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책상을 치고 장단을 친 기억이 납니다. 쿵쾅쿵쾅 이렇게요.

V.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과 새터민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의 음악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의 사상적 바탕을 이해함으로써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관한 문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체제분석 결과, 5종 모두 동일한 판형을 가지고 있으나 지질, 활자의 크기, 인쇄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삽화와 사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수록되어있는 삽화는 학습의 효과를 주는 시각적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겉표지는 컬러로 제작되어있으며 전체적인 외형 분위기가 음악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도록 구성되기보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체제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내용체제분석 결과, 활동영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북한 음악교과서의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가창·시창·감상·기악·기악과 노래·음악이론·창작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영역별 분석결과, 가사가 있는 가창곡과 시창곡이 61%로 가사중심의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창곡은 주로

김부자의 혁명업적, 위대성을 찬양하는 송가가 가장 많다. 따라서 가사·곡 내용도 김부자 찬양, 조국찬양, 충성에 대한 내용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곡은 선율보다는 언어의 매개체가 되는 가창곡(가사)에 중요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감상, 기악, 이론영역은 비중이 낮으며 대부분의 곡은 이념적 성격을 띠는 곡들로 외국곡은 배제되고 자국의 창작곡만이 수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악기는 소수의 제한된 악기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악기체험을 저해하였다. 이론영역은 이론에 대한 설명뿐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습되어지기는 어렵다 볼 수 있다. 창작영역은 시창 영역 안에 포함되어있으며 단순한 리듬 만들기 시작해 확대 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해 개인의 감정 표현 및 창의성을 억제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인터뷰 결과,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남한과 비슷하게 구성되어있으며 입학 후 하면 졸업까지 한명의 담임이 전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교육환경면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이지만 수업료만 없을 뿐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낙후로 인해 악기나 음향시스템이 없어 시설면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다. 음악수업은 주로 가창과 시창활동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업내용은 김부자 찬양에 관한 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 예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악수업은 악기보급의 문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소조활동, 과외활동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이처럼 교과서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요소 즉, 교육환경, 학습내용, 학습목표 등 모든 것이 사상성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 양국 체제의 다름에 따른 이질성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지하고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 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전통을 인정하며 화합 할 때 비로소 같은 음악적 뿌리로부터 남과 북의 다양한 민족음악유산이 탄생하고 계승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제2011-316호 [별책12].
- 권오성 외(2001). **북한음악의 이모저모**. 서울:민속원.
- 김광섭(1996). **(통일을 대비한)북한 바로알기**. 서울:미래문화사.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문맥사.
- 김미빈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종균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형찬(1977). **북한의 교육**. 서울:을유문화사.
- 나현희(2010). 새터민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균열(2010).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제10권 제3호. 145-180.
- 박동식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5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박찬석(2013). **북한교육연구**. 파주:한국학술정보.
- 배인교(2012).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35집. 61-94.
- 북한연구학회(2006).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서울:경인문화사.
- 서현진(2005).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 방안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광철 외 (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윤금혜(2005).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미(2002).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관한 고찰.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주(2006).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서울:민속원.
- 장기범(2000). 북한의 음악: 철학, 형식, 종류에 대한 고찰. **음악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 정혜경(2009). 북한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태봉 외 (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통일부(2014).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ABSTRACT

The Analytical Study on Music Textbooks and Music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in North Korea

Lee hyesu · Hyun, Kyungs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music educa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music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s in North Korea and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for future unification edu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in terms of external format, the five types of textbooks had the identical format but the quality of paper materials and ink was poor. Few illustrations and photos were found and the illustrations weren't helpful in aiding the understanding.

Second, in terms of contents, singing and sight-singing accounted for 61% of all the activity areas and 72% of song lyrics were about admiration for Kim's family, praise for fatherland, and loyalty, with emphasis on self-reliance ideology.

Third, through the interview, we found while education in North Korea is free-of-charge and obligatory, individuals need to purchase things for school life. Educational environment is poor, instrument supplies are lack, and sound system is sparsely equipped.

Key words: music text books in North Korea, music curriculum in North Korea

투고일: 2016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7년 1월 11일(1월 20일), 게재확정일: 2월 6일